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적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45호

Jeff Pippenger

2026-02-12

제45번

검토

레위기 23장은 십사만 사천의 오순절 기간 가운데 세 가지 시험을 밝힌다. 장막절의 첫째 날을 오순절과 대응시키고, 이어 그리스도께서 승천 전에 제자들을 대면하여 가르치신 사십 일을 초실절의 날과 대응시키면, 세 천사의 기별을 대표하는 전체적 구조가 형성된다.

“죽음, 장사됨, 부활”을 그리스도의 세례로 표상되는 바와 같이 세 단계로 이루어진 단일한 예언적 이정표로 적용할 때, 첫 열매의 날에 있었던 부활로부터 닷새가 지난 뒤에 칠 일간의 무교절의 끝날이 성회로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첫 열매의 제사와 일치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닷새의 기간이 이어진다.

장막절 첫날을 오순절의 날과 일치시켜 형성된 그 구조의 끝에는 세 단계로 된 또 하나의 이정표가 있고, 또한 그 뒤이어 오순절에 이르는 다섯 날이 따른다.

그 두 '세 단계의 이정표에 이어 닷새가 뒤따르는' 경우 사이에는 삼십 일의 기간이 있다. 장막절 첫째 날을 오순절과 대응시키면, 장막절 첫째 날 닷새 전이 대속죄일이었음을 알게 된다. 대속죄일 열흘 전은 나팔절이었다. 초실절에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께서 대면하여 가르치신 사십 일간은, 나팔절 후 닷새, 그리고 대속죄일 전 닷새와 일치한다.

그분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이라는 세 단계 이정표와, 그 뒤로 무교절의 끝에 이르기까지 다섯 날이 뒤따르는 양식은, 그 후 삼십 일 뒤에, '나팔, 승천, 심판'이라는 세 단계 이정표가 주어지고 그 뒤로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다섯 날이 뒤따를 때, 다시 반복된다. 시작의 세 단계 이정표는 세 단계로 구성된 단일 이정표로 쉽게 규정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세례에 의해 바로 그러한 것으로 직접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 세례는 그분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을 상징한다. 그 세례는 거룩한 1,260일 기간의 알파였으며, 그 기간은 그분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에서 절정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곧 그 1,260일의 오메가였다.

오순절기의 끝에 있는 세 단계 이정표는 예언적 적용을 통해 인식되어야 한다. 오순절기의 50일에는 시작과 끝에서 동일한 구조가 발견된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시작으로 끝을 보여 주신다는 원리에 근거하여, 우리는 나팔절에 이어 승천이, 그에 이어 대속죄일이, 그에 이어 5일이 이어지는 순서를 하나의 '세 단계 이정표에 뒤이어 5일'로 식별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세 단계 각각의 특성에 관한 성경적 지침에 비추어 제시된 세 단계를 검증한다. 그 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것들은 세 천사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다. 나팔절, 승천, 대속죄일을 그 세 단계로 식별하려면 각 단계가 확립된 성경적 증언과 일치해야 한다.

나팔은 경고의 기별이며,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외치는 첫째 천사와 연관된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의 재림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이는 첫째 천사의 두 번째 표현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이기 때문이다. 속죄일은 심판의 상징이며, 첫째 천사의 세 번째 표현은 '그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이다. 오순절 절기의 끝에 있는 이정표에서의 세 단계가 지니는 예언적 특성이, 많은 이들이 '정결케 되고 희게 되며 연단을 받는' 영원한 복음의 세 단계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그런즉, 세 단계의 첫째 이정표에서는 보리 초실 제물이 드러지고, 세 단계의 마지막 이정표에서는 밀 초실 제물이 드러진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순절기의 알파 세 단계는 무교병을 가리키지만, 오메가의 세 단계 이정표는 유교병을 가리킨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처음의 세 단계 이정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이끌기 위하여 들려 올려지셨고, 끝의 세 단계 이정표에서는 이방인들을 이끌기 위하여 십사만 사천의 기호가 들려 올려진다는 것까지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천사와 셋째 천사는 예언적 차원에서 동일한 천사이다. 이는 첫째가 시작이요 셋째가 마침이기 때문이다. 알파로서의 첫째 천사는 심판의 개시를 선포하고, 오메가로서의 마지막 천사는 심판의 종결을 선포한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40년 8월 11일에 있었던 이슬람의 성취로 권능을 부여받았고, 셋째 천사는 9/11에 있었던 이슬람의 한 성취로 권능을 부여받았다. 화이트 자매는 첫째 천사와 셋째 천사 모두의 사명이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다른 증거들도 풍부하며,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오순절까지의 오십 일과 레위기 23장의 처음 스물두 절 및 레위기 23장의 마지막 스물두 절에 제시된 바에 따라 오순절 절기의 구조를 식별하는 데 충분한 뒷받침을 제공한다. 세 단계라는 하나의 이정표와 그 뒤를 잇는 다섯이라는 이정표, 이 두 이정표 사이에는 둘째 천사를 나타내는 삼십 일의 기간이 있다.

'세 단계 다음에 다섯' 날들의 첫 번째 이정표는 첫째 천사요, 그 삼십 일은 둘째 천사를 가리키며, '세 단계 다음에 다섯' 날들의 두 번째 이정표는 셋째 천사이다. 이 세 단계는 오순절에 이르기까지의 오순절기 전체를 포괄하며, 오순절은 이어서 장막절의 칠 일의 시작을 알린다. 이 칠 일은 미국에서의 일요일 법령으로 시작되어 미가엘이 일어서고 인류의 은혜 시간이 닫힐 때까지 계속되는 일요일 법령 위기 동안에 임하는 늦은 비의 부어 주심을 상징한다. 그 구조는 신적이지만, 몇 가지 중대한 고려를 불러일으킨다.

중대한 고찰

'나팔, 승천, 심판'으로 표상되는 이정표가 시금석이자 제3의 시험임은 자명하다. 제3의 시험은 언제나 시금석으로서, 그 시험에서는 품성이 드러나되 결코 형성되지는 않는다.

"위기는 품성을 드러낸다.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가라'고 간절한 음성이 선포되었을 때, 잠자고 있던 처녀들은 잠에서 깨어났고, 누가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였는지가 드러났다. 양편 다 뜻하지 않은 때에 일을 당하였으나, 한편은 그 비상한 경우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었고, 다른 한편은 준비 없이 드러났다. 품성은

환경에 의하여 드러난다. 비상사태는 품성의 참된 금속을 드러낸다. 어떤 갑작스럽고도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별이나 위기, 어떤 뜻밖의 질병이나 고통, 곧 영혼으로 하여금 죽음과 대면하게 하는 어떤 것은 품성의 참된 내면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에 대한 참된 믿음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날 것이다. 영혼이 은혜로 지탱되고 있는지, 등불과 함께 그릇 속에 기름이 있는지가 나타날 것이다.”

“시험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이른다. 하나님의 시험과 단련 아래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는가? 우리의 등불은 꺼지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것을 타오르게 하는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과의 연결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는가? 다섯 슬기로운 처녀는 다섯 미련한 처녀에게 자기들의 품성을 나누어 줄 수 없었다. 품성은 우리가 각 개인으로서 형성해야 한다.” Review and Herald, October 17, 1895.

나팔절 이정표에 이르면, 당신의 품성은 영원히 인침을 받고, 당신은 기치로 높이 들려지며, 당신의 죄는 영원히 도말된다. 그 세 단계는 인침의 세 가지 양상을 대표한다. 한밤중 외침의 기별이 도착할 때, 기름을 가진 자들이 드러나고, 그들의 죄가 제하여짐에 따라 그들은 기치로 높이 들려진다. 그 기별과 그 사역과 그 인침은 모두 하나의 이정표이다. 그것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죽음과 대면하게 하는" 이정표이다. 이슬람의 나팔은 그 "예기치 못한 재난"을 표상한다. 그 시점에 "보라 신랑이 오신다"라는 기별이 일요일 법령에 앞서 다섯 날 전에 선포되며, 그 일요일 법령에서 그 기별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으로 변화한다.

그 이정표의 세 단계는 일요일 법령 직전에 십사만 사천의 인침과 들림을 가리키는 식별적 요소들이다. '나팔, 승천, 심판'이라는 시금석은 엑서터 야영회로 표상되었음이 분명하다. 대속죄일과 오순절 사이의 5일은, 8월 17일 엑서터 야영회가 끝난 때부터 문이 닫힌 1844년 10월 22일까지의 66일을 표상한다. 그 66일의 밀러주의자 역사는 말세를 예시하며, 이와 관련하여, 십사만 사천이 한밤중 소리의 기별을 선포하는 것을 예시한다.

오순절까지의 닷새는 밀러주의자들이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을 선포하던 66일과 상응하며, 그 기간은 또한 그리스도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예표되었다. 세 단계 중 첫째는 나팔절로서, 이는 일곱째 나팔, 곧 셋째 화, 곧 말세의 이슬람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에는 그에 앞서 나귀의 매임이 풀리는 일이 있었다.

예언적으로 볼 때, 이것은 나귀의 매임을 푸는 일이 승리의 입성의 시작을 표징하며, 곧 그것이 한밤중의 외침임을 가리킨다. 성경 예언은 말세에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 곧 땅의 짐승인 미국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슬람은 9/11 때 그랬던 것처럼 미국을 타격할 것이며, 따라서 이슬람에 의한 미국에 대한 중대한 타격으로 한밤중의 외침의 선포의 시작이 표시되고, 또 다른 중대한 타격으로 그 선포의 종결이 표시될 것이다. 이는 예수께서 언제나 어떤 일의 끝을 그 일의 시작으로써 예증하시는 까닭이다.

오순절의 기별은 큰 외침의 기별이며, 큰 외침은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이 단순히 강화된 것이다. 밀러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한밤중의 외침은 1844년 10월 22일 문이 닫힐 때 끝났으며, 말세에는 일요일 법령에서 문이 닫힐 때 그것이 끝난다. 오순절에 베드로는 요엘의 기별을 선포하였고, 오순절은 한밤중의 외침의 오메가적 결말이므로, 한밤중의

외침의 알파적 시작에 있는 베드로 또한 예언적 필연성상 요엘의 기별을 제시해야 한다. 한밤중의 외침에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제삼시에 다락방에 있고, 같은 날 제구시에 성전에서 요엘의 기별을 선포한다.

베드로는 오순절, 곧 한밤중의 외침의 끝에서의 십사만 사천을 상징하며, 또한 한밤중의 외침의 시작에서의 십사만 사천을 상징한다. 십사만 사천의 인침과 일으켜 세움은 이슬람이 타격을 가할 때 나귀의 결박이 풀리는 일로 시작된다. 밀러파가 엑서터 야영집회를 떠났을 때 그들은 그 기별을 해일처럼 전파하였고, 그 경험을 반복할 십사만 사천을 상징적으로 예표하였다.

베드로가 오순절 시기의 리트머스 시험과 세 번째 시험에서 한밤중 소리 기별을 선포하는 자들을 대표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이 적용은 더욱 엄중해진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제삼시는 그를 다락방에 있게 하며, 그 다락방은 또한 오순절 전의 열흘을 가리킨다. 오순절 시기의 두 번째 시험은 기초 시험에 뒤이어 오는 삼십 일의 성전 시험이다. 성전의 두 번째 시험은 신실한 자들에게, 그들의 죄가 도말되고 또한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지성소에 믿음으로 들어가기로 요구한다.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제삼시에 다락방에서 요엘서를 본문으로 한 설교를 시작하였고, 이어 제구시에 그는 성전에 있었음을 알려 준다.

그러나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 때가 아직 낮 제삼시임이라. 오직 이는 선지자 요엘이 말씀한 것이니라. ... 이제 제구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니라. 사도행전 2:14-16; 3:1.

그리스도께서는 제삼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제구 시에 죽으셨다. 그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은 세 단계로 된 하나의 이정표이다. 세 번째 단계인 첫 열매의 날은 오순절로 종결되는 오십 일을 개시한다. 오순절 시기의 알파에서 제삼 시와 제구 시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제삼 시에는 살아 계셨고 제구 시에는 죽으셨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제삼 시에는 다락방에 있었고 제구 시에는 성전에 있었다.

그리스도 당시의 거룩한 쉰 날로 이루어진 오순절 기간은 이천삼백 년의 예언과 직접 연결된 거룩한 예언적 기간이었다. 그것은 특히 다니엘 9장에서 유대 민족을 위한 사백구십 년의 마지막 한 이레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확증하신 그 거룩한 한 이레는 예언적 1,260일의 두 동등한 기간으로 나뉘었다. 그 이레의 중심은 십자가였다. 십자가는 제삼시와 제구시를 가리키며, 오순절 때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한다. 서기 34년에, 가이사랴 마리티마에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였을 때, 곧 그 동일한 거룩한 이레의 끝에, 때는 제구시였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하여 그의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가 낮 제구시쯤 환상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들어와 “고넬료야” 하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그를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념으로 상달되었느니라. 이제 사람들을 옴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사도행전 10:1-5.

이튿날, 베드로는 제육시경에 기도하기 위하여 지붕 위로 올라간다.

이튿날 그들이 여정을 계속하여 그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제육시쯤에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가 심히 시장하여 먹고자 하였으나 사람들이 준비하는 동안 황홀한 중에 들어가,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 같은 것이 그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니, 네 모퉁이가 맺어진 큰 보자기와 같아서 땅에 떨어지더라. 그 안에는 땅의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그에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부정한 것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또 두 번째로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한 일이 세 번 있는 후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거두어 올려지니라. 사도행전 10:9-16.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하기 위하여 임하는 제구시에, 베드로는 가이사랴로 오라는 부름을 받는다. 고넬료는 일요일 법령 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름받는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대표한다. 일요일 법령 때 임하는 그 천사는 요한계시록 십팔장의 둘째 음성으로, 여전히 바벨론에 있는 자들에게 피하라고 부른다. 베드로는 십사만 사천이며, 고넬료는 열한시 일꾼들인데, 그들은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들로 표상된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관계는 요한계시록 칠장에서 관계로, 거기에서 십사만 사천이 큰 무리와의 연관 속에서 식별된다. 베드로는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명령을 세 번 받았다. 십사만 사천으로서, 고넬료로부터의 부름은 기치가 일어나라는 명령을 받는 때이다.

고넬료는 때로 '바닷가 가이사랴'라고도 불리는 가이사랴 마리티마에 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물'이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방언들'이라고 알려 준다. 이 '물'은 하나님의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며, 또한 요한계시록과 부정한 짐승들에 관한 베드로의 환상에서처럼 숫자 사(四)는 온 세계를 대표한다. 베드로의 환상에는 서로 다른 네 종류의 짐승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네 모퉁이를 붙잡은 보자기에 담긴 채 내려온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관계는 또한 방주에 오른 노아와 짐승들로도 표상된다.

베드로는 '밝고 아름답다'라는 뜻의 욥바에 있었는데, 이는 베드로가 십사만 사천의 상징으로서 이방인들을 향한 밝고 아름다운 기치가 되기 때문이다. 제구시에 이방인들은 그 기치에 깨어나며, 화잇 자매는 그 기치를 안식일, 하나님의 율법, 셋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말세의 기별을 전 세계에 전하는 선교사들이라고 지칭한다. 바닷가의 가이사랴에서 천사가 제구시에 이르렀을 때, 고넬료는 그 기치에 깨어났다. 그리하여 오순절의 일요일 법령 때 그 기별은 세상, 곧 바다로 나아간다.

기치를 들어 올리는 것은 또한 주의 집이 산들 위에 높이 들려지는 것으로 표상되며, 아름답고 찬란한 욥바 성에서 베드로는 제육시에, 제구시의 일요일 법령 직전에, 집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십사만 사천인이 인침을 받을 때, 세상 안의 위기 상황은 아직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빛을 구하도록 이끌 것이다. 그들은 인도되어 욥바의 집 지붕 위에 있는 베드로를 찾게 된다.

또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다. 헤르몬 산 기슭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닷가의 가이사랴와 같은 이름을 가졌으나, 한 도시는 육지에

자리하고 다른 도시는 바다에 접해 있었다는 점에서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그리스도께서 제삼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구 시에 죽으신 사실은 생명과 죽음의 뚜렷한 대조를 가리킨다. 오순절에 제삼 시와 제구 시에 나타난 베드로는 다락방에서 성전으로의 뚜렷한 대비를 드러낸다. 육지의 가이사랴든 바다의 가이사랴든 제삼 시와 제구 시의 필연적인 예언적 대비를 표상하지만,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을 때에는 제삼 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확정된다는 원리에 따라, 십자가의 제삼 시와 제구 시에서도 또 오순절에서도 두 가지 예시는 각각 한 인물에 의해 표상된다. 곧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든 무덤에 계시든 그러하며, 베드로는 다락방에 있던 성전에 있던 그러하다.

두 가이사랴에서의 제삼시와 제구시에 관한 셋째 증언은 두 경우 모두에서 주요 인물로 베드로를 지목하며, 오순절기의 시작에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동일한 절기의 끝에서는 베드로가 그러하였다. 제삼시의 알파적 인물은 제구시의 오메가적 인물과 동일하여, 두 가이사랴 가운데 가이사랴 빌립보가 알파임을 입증하는 한 증거가 된다. 둘째 증거는 두 도시의 이름이 동일하다는 사실이니, 곧 주요 인물의 이름과 도시의 이름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셋째 증거는 육지와 바다의 대조이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을 때는 제삼시였다. 바로 여기에서 그 메시지는 더욱 중대해진다.

같은 이름을 가진 두 도시를 서로 대응시키는 것은 옳으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증언과 오순절 때 베드로의 증언에 근거하여 그 적용에 제삼시와 제구시를 포함시키고 있다. 세 개의 선을 결합함으로써—곧 그리스도의 제삼시와 제구시, 오순절 때 베드로의 제삼시와 제구시—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제삼시를 확정한다. 동일한 예언적 논리를 제구시의 고넬료, 제육시의 베드로, 그리고 제삼시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베드로에게 적용해야 한다.

베드로는 세 이정표 모두에 있으며, 고넬료는 베드로와 함께 제육시와 제구시에 있으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제삼시에는 있지 않다. 이 선은 서로 결속되어 있는데, 각 단계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옴바로, 그리고 가이사랴 마리티마로 이어지며 각각 제삼시, 제육시, 제구시에 해당한다. 두 가이사랴의 문화적 뿌리는 모두 그리스와 로마에 연원하였으나, 가이사랴 빌립보의 특징은 아득하고 신비적인 이교주의의 구현이었고, 해변의 가이사랴는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통치를 융합한 상업 및 행정의 중심지였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교회정치의 상징이었고, 가이사랴 마리티마는 국정술의 상징이었다.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에 이르는 선에서, 세 단계 중 중간 단계는 옴바이다. 이 세 단계는 제삼시, 제육시, 제구시로 표상된다. 제구시의 바닷가의 가이사랴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일요일 법령이다. 그로부터 세 시간 전, 제육시에 베드로는 밝고 찬란한 성읍인 옴바에 있다. 그보다 다시 세 시간 전에는 베드로가 제삼시에 나팔절에 있다.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까지는 한밤중의 외침의 기간이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항상 시작을 끝과 일치시키시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밤중의 외침을 선포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한밤중의 외침은 베드로가 요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나팔절 이정표에서 나귀가 풀려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베드로는 나팔절, 승천,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심판으로 이루어진 세 단계의 이정표에 서 있다. 마태복음 16장의 그 이정표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베드로의 이름이 바뀌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신다. 성전이 그 위에 세워진 반석은 기초이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는 첫째 천사의 기별, 곧 기초적 기별이다. 베드로가 다음 단계에, 곧 옅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리스도께서 사십 일 동안 대면으로 가르치신 끝에 승천하신 것처럼 올라간다. 승천은 또한 구원사의 주된 기치인 십자가와 병행을 이룬다; 그리고 십자가는 두 강도와 지성소의 휘장의 찢어짐, 그리고 흑암과 여러 시각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제육시로부터 제구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제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심이라. 마태복음 27:45, 46.

옅바에서, 여섯째 시에 베드로는 잃은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 사이, 빛과 어둠 사이, 그리고 한밤중 외침의 시작과 종결 사이에 놓인 예언적 분기점에 서 있다. 그 분기점은 십사만 사천의 라오디게아적 운동에서 십사만 사천의 빌라델비아적 운동으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이는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완전한 거절을 표징한다. 대속죄일로 표상되는 그 심판의 닫힌 문은 오순절의 일요일법령이 임하기 닷새 전에 온다. 그 심판에 앞서 승천이 있으며, 그 이전에는 나팔의 기별이 있다. 그 세 단계는 하나님의 인이 인쳐지고 또한 승리하는 교회가 고넬료로 대표되는 자들에게 한밤중 외침의 기별을 선포하는 그 이정표를 표상한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그 기별을 선포하며, 오순절은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의 끝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또한 한밤중의 외침 기간의 시작에 그 기별을 선포하는 것은 예언적 필연이다. 시작은 언제나 끝을 예시한다. 베드로의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은, 이슬람의 나귀가 풀려나 미국을 공격할 때 권능을 받는데, 그와 같은 일은 일요일 법령 때 다시 일어난다. 오순절에 제삼시와 제구시에 베드로가 그 기별을 선포하는 것은 한밤중의 외침의 시작과 끝을 가리킨다.

우리가 고찰하는 선상에서,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마무리되는 그 사십 일은 또한 다락방에서의 열흘의 시작을 알린다. 그 열흘 가운데 다섯째 날에,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죄가 도말되었고 교회가 스스로 예비를 마쳤음을 증거한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다락방에 있었던 때는 제삼시였다. 일요일법령의 제구시에, 그 기별은 한밤중에서 큰 소리 외침으로 전환된다.

베드로가 제삼시에 있을 때, 그는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을 선포한다. 그 기별은 나귀가 풀리는 때인 나팔절과 가이사랴 빌립보로 표지되며, 가이사랴 빌립보는 곧 파니움이다. 파니움은 다니엘 11장 13절부터 15절에 표상된다. 베드로는 한밤중의 외침의 선포가 시작될 때, 곧 나귀가 풀릴 때에, 미국에 대한 이슬람의 타격만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요일 법령으로 이어지는 파니움 전투에 있다. 파니움 전투는 미국에 대한 이슬람의 타격과 병행하는 사건이다.

이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